

제7회 동북아지방의회 의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 동북아시아 5개국 문화관광교류 관련 워크숍

일시 ■ 2016년 03월 31일(목), 14:00

장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주최 ■ 충남연구원

주관 ■ 충남연구원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b>개회</b> - 참석자소개 - 환영사 :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사회)
14:10~15:10	<b>주제발표</b> - 1주제 : 동북아(한중일) 관광동향 및 통계 이강욱(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주제 : 지자체 차원의 관광교류 정책 및 방안 민웅기(목원대학교)	
15:10~15:20	<b>휴식</b>	
15:20~16:00	<b>지정토론</b> - 최인호(청운대학교 교수) - 이영주(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장인식(우송정보대학교 교수) - 김경태(충남연구원)	(좌장) 충남연구원장
16:00~16:50	<b>자유토론</b>	
16:50~17:00	<b>폐회</b>	(사회)





# 목 차

1. 동북아(한중일) 관광통계 및 관광교류 협력 동향	1
이 강 옥 선임연구위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지자체 차원의 관광교류 정책 및 방안	27
민 응 기 교수 (목원대학교)	



# 1. 동북아(한중일) 관광통계 및 관광 교류협력 동향

이 강 옥 선임연구위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동북아(한·중·일) 관광 통계 및 관광 교류협력 동향

이강욱 선임연구위원

## — < 목 차 > —

- I. 외래객 입국 및 내국인 출국 현황
- II. 한·중·일 관광 교류 규모
- III. 방한 중국인 및 일본인 여행행태
- IV. 한·중·일 관광 교류협력 동향

2016. 3.

# I. 외래객 입국 및 내국인 출국 현황

## 1. 외래객 입국자 수 및 방문 지역

### □ 외래객 입국자수 및 성장률

- 외래객 입국자수는 2001년 514 만명, 2005년 602만명,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방한외래객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1,100만명, 2014년 1,420만명, 2015년은 MERS 영향으로 전년대비 6.8% 감소한 1,323만이 입국함
- 2015년 기준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 45.3%, 일본이 13.9%, 미국 5.8% 등의 순으로 외래객 입국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2013년 이후 중국이 방한 외래객의 1순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방한 일본인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신흥관광시장으로 2010년 이후 러시아를 비롯하여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방한 외래객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1> 방한 외래객 입국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총 입국자수		중 국		일 본		미 국		대 만		러 시 아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2001년	5,147.2	-3.3	482.2	8.9	2,377.3	-3.8	426.8	-6.9	129.4	1.8	134.7	-13.3
2005년	6,022.8	3.5	710.2	13.2	2,440.1	-0.1	530.6	3.8	351.4	15.3	143.9	-8.3
2010년	8,797.7	12.5	1,875.2	39.7	3,023.0	-1.0	652.9	6.8	406.4	6.8	150.7	10.0
2011년	9,794.8	11.3	2,220.2	18.4	3,289.1	8.8	661.5	1.3	428.2	5.4	154.8	2.7
2012년	11,140.0	13.7	2,836.9	27.8	3,518.8	7.0	697.9	5.5	548.2	28.0	166.7	7.7
2013년	12,175.6	9.3	4,326.9	52.5	2,747.8	-21.9	722.3	3.5	544.7	-0.7	175.4	5.2
2014년	14,201.5	16.6	6,126.8	41.6	2,280.4	-17.0	770.3	6.6	643.7	18.2	214.4	22.2
2015년	13,233.7	-6.8	5,984.2	-2.3	1,837.8	-19.4	767.6	-0.3	518.2	-19.5	188.1	-12.3

자료: 한국관광공사 (각년도)



[그림-1] 방한 외래객 입국 추이

## □ 방한 외래객의 방문지역 (17개도 광역시도)

- 2014년 기준 방한 외래객의 한국 여행 시 방문 지역(17개 시도기준)은 서울 80.4%, 제주18.0% 경기 13.0%의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 제주, 부산, 강원도를 제외한 타지역은 5% 미만의 낮은 점유율 보이고 있음

<표-2> 방한 외래객 방문지역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서울	80.4	80.9	82.5	79.7	80.3
제주	18.0	16.7	12.0	10.2	13.1
경기	13.0	17.9	21.3	23.8	30.5
부산	8.0	11.7	12.2	14.1	15.7
강원	7.1	9.2	9.7	11.1	11.7
인천	5.0	7.8	7.7	9.0	17.6
경남	3.6	1.7	2.4	3.4	3.0
경북	2.4	4.0	4.2	5.6	6.1
전남	1.6	2.1	2.2	1.5	2.3
울산	1.4	1.8	1.8	2.4	2.1
전북	1.2	1.5	1.6	2.0	2.4
대구	1.2	2.9	3.1	3.5	4.0
대전	1.1	2.1	2.2	3.1	4.0
충남	0.9	1.7	1.5	1.5	2.6
충북	0.5	0.6	0.9	1.0	1.5
광주	0.4	1.3	1.2	1.6	2.6
세종	0.1	-	-	-	-
기타	0.2	0.6	0.3	0.7	1.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4외래관광객실태조사

## 2. 내국인 출국자수 및 성장률

- 내국인 출국자수는 이라크전쟁과 사스(SARS)가 발생한 200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 유지하고 있어 2015년에는 1,981만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함
- 국민 해외여행 목적지별 출국자 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중국은 2015년 4,444.4천명으로 2014년 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방일 한국인은 엔저의 영향으로 2015년 4,002천명으로 전년대비 6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내국인 출국의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 23.2%, 일본 21.0%, 태국 7% 등의 순으로 내국인 출국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3> 내국인 출국 현황

(단위 : 천명, %)

	출국자수		일본		중국		홍콩		태국		미국	
	명수	성장률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인원	성장률
2001년	6,084.5	10.5	1,134.0	6.5	1,678.8	24.8	-	-	553.4	23.5	-	-
2005년	10,080.1	14.2	1,747.2	10.0	3,545.3	24.6	642.5	19.2	816.4	-10.4	705.1	12.5
2010년	12,488.4	31.5	2,439.8	53.8	4,076.4	27.5	891.0	44.0	805.4	30.3	1,107.5	48.9
2011년	12,693.7	1.6	1,658.1	-32.0	4,185.4	2.7	1,021.0	14.6	1,006.3	24.9	1,145.2	3.4
2012년	13,737.0	8.2	2,044.2	23.3	4,069.9	-2.8	1,078.5	5.6	1,163.6	15.6	1,251.4	9.3
2013년	14,846.5	8.1	2,456.2	20.1	3,969.0	-2.5	1,083.5	0.5	1,295.8	11.4	1,359.9	8.7
2014년	16,080.7	8.3	2,755.3	12.1	4,181.8	5.4	1,251.0	15.5	1,117.4	-13.7	1,449.5	6.6
2015년	19,310.4	20.1	4,002.1	61.1	4,444.4	16.2	1,243.3	-0.6	1,376.9	23.3	-	-

자료: 한국관광공사, 각년도 (2006년 7월 이후부터 목적지별 통계자료 생산 중단)



[그림-2] 내국인 출국자 추이 (1990-2015)

### 3. 주요 영향요인

- 2003년 SARS 발생과 미국이라크 침공은 방한 외래객 입국 및 한국인 출국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및 2009년 유럽재정위기 등의 경제 불황은 내국인 출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 2004년 이후 방한외래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방한 중국 관광객의 성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흥관광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동남아의 한류체험 관광객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15년에는 MERS의 영향으로 외래객 입국은 감소하였으나, 내국인 출국은 약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2년 아베노믹스의 엔저정책으로 방일 한국인 크게 증대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관광은 출입국 정책, 환율, 테러, 질병, 정치 및 외교적 갈등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4〉 외래객 입국 및 내국인 출국 영향 요인

연도	총 방한 외래객		내국인 출국		주요 영향요인
	명	성장률	명	성장률	
2001	5,147,204	-3.3	6,084,476	10.5	9.11 테러발발, 광우병, 구제역확산
2002	5,347,468	3.9	7,123,407	17.1	2002월드컵개최, 부산아시안 게임개최
2003	4,752,762	-11.1	7,086,133	-0.5	미국이라크침공, SARS발생,
2004	5,818,138	22.4	8,825,585	24.5	동유럽10개국EU가입, 인도네시아쓰나미발생
2005	6,022,752	3.5	10,080,143	14.2	발리섬연쇄폭탄테러, 주5일제부분실시
2006	6,155,046	2.2	11,609,879	15.2	북한핵실험, 독일월드컵
2007	6,448,240	4.8	13,324,977	14.8	한미FTA타결
2008	6,890,841	6.9	11,996,094	-10.0	미국 발 경제위기 (리먼브라더스파산)
2009	7,817,533	13.4	9,494,111	-20.9	유럽재정위기(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2010	8,797,658	12.5	12,488,364	31.5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G20정상회담
2011	9,794,796	11.3	12,693,733	1.6	K팝 관심확대, 일본 쓰나미 (3.11.). 런던올림픽,
2012	11,140,028	13.7	13,736,976	8.2	원화약세,세계경제 불확실성지속, 한일관계악화 (독도), 중일 센카쿠 분쟁
2013	12,175,550	9.3	14,846,485	8.1	한일외교갈등, 중국여유법 시행(10.1)
2014	14,201,516	16.6	16,080,684	8.3	한류 영향을 방한 중국인 증대, 한일 관계 악화 및 엔화 약세
2015	13,213,651	-6.8	19,310,140	20.1	일본의 비자완화 및 환율정책으로 방일객 증대, 메르스사태(5.20-7월말) 방한여행 취소

## II. 한·중·일 관광교류 규모

### 1. 한·중·일 역내 관광객 교류 규모

- 2015년 기준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역내 관광교류 규모는 2,376만 명으로 2010년의 1,653만 명 보다 43.7% 증가한 수준으로 확대
-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간 관광객 송출 비중은, 한국이 약 845만 명으로 35.6%, 일본이 약 434만 명으로 18.3%, 중국은 약 1,097만 명으로 46.2% 가장 높은 송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한·중·일 3국간 관광시장에서 중국의 관광객 송출 규모는 지난 5년간 233.7%가 증가한 반면 일본의 한중 국가 내 아웃바운드는 3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간 인바운드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약 782만 명, 일본은 899만 명, 중국은 694만 명으로 한·중·일 3국 역내 관광교류 총규모는 2,376만 명으로 나타남

〈표-5〉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교류 규모 (2010년기준)

목적지 송출국	한국	일본	중국	합계	송출 비중 (%)
한국	-	2,415,362	4,076,400	6,491,762	39.3
일본	3,023,009	-	3,731,200	6,754,209	40.8
중국	1,875,157	1413,100	-	3,288,257	19.9
합계	4,898,166	3,828,462	7,807,600	16,534,228	

자료: 한국관광공사, JNTO, 중국 여유국

〈표-6〉 한·중·일 3국간 역내 관광교류 규모 (2015년기준)

목적지 송출국	한국	일본	중국	합계	2010년대비 증감률(%)	송출 비중(%)
한국	-	4002052	4444400	8,446,452	30.1	35.6
일본	1,837,782	-	2500000	4,337,782	-35.8	18.3
중국	5984170	4990000	-	10,974,170	233.7	46.2
합계	7,821,952	8,992,052	6,944,400	23,758,404	43.7	

자료: 한국관광공사, JNTO, 중국 여유국

### 2. 한·중 관광교류 규모

#### □ 중국 아웃바운드 특성

-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2010년 5천만 명 돌파 이래 2014년 최초로 1억 명을 넘어서고, 중국국가여유국은 2015년 중국인 해외관광객 수가 1억2천 명인 것으로 발표함

- 2015년 중국인의 홍콩, 마카오 방문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본과 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태국 방문 중국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71.1% 증가, 일본 방문 중국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107.3% 증가하여 2015년에 일본의 최대 인바운드 시장으로 급부상
- 중국인의 주요 출국 목적지는 홍콩(1순위), 마카오(2순위)에 이어 태국 793만 명, 한국 598만 명, 대만 418 만명, 태국 793만 명 순이며 한국은 2015년 메르스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3%의 성장률을 보임

〈표-7〉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 주요 목적지(2015)

순위	국가	관광객 수(명)	증가율(%)
1	홍콩	45,842,360	-3.0
2	마카오	20,410,615	-4.0
3	태국	7,934,791	71.1
4	한국	5,984,170	-2.3
5	일본	4,993,800	107.3
6	대만	4,184,102	4.9

자료 : 각국의 인바운드 통계자료 토대로 작성

\* ( ) : 전년대비 성장률 중국 국가여행국(CNTA) 통계자료

- 중국인의 해외관광 목적지로서 2015년 기준 중화권(홍콩, 마카오, 대만)이 58.7%로 절반 이상 차지하며, 중화권을 제외한 3대 목적지 중에서는 태국 > 한국 > 일본 순임

〈표-8〉 주요 목적지별 방문 비중(2015)

구분	홍콩	마카오	대만	한국	태국	일본
중국인 전체 해외관광 내 점유율(%)	38.2	17.0	3.5	5.0	6.6	4.2

자료 : 중국국가여유국 자료 및 각국의 인바운드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출

- 중국 아웃바운드에서 영향력 있는 세분시장은 노년층, 부유층, 학생층으로 중국부유층의 평균 연령은 36세의 젊은 층으로 선호 목적지는 프랑스, 미국, 호주임
- 중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쇼핑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쇼핑은 여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품 브랜드 쇼핑을 선호함
- 중국은 세계최대 온라인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인터넷과 온라인 소셜미디어는 중국인들에게 중요한 여행정보원으로 활용
- 중국인들은 해외여행 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비자취득, 언어문제, 안전성 등의 문제로 단체 여행을 선호함

- 중국은 해외여행 지출규모의 빠른 성장률에 힘입어 2012년부터 여행지출 기준 해외여행 최대 소비국가로 자리매김

#### □ 중국인 총 출국자 수 대비 방한 중국인

- 중국인 총 출국자 수 대비 방한 중국인 비중은 2014년 5.7%에서 2015년에는 약 5%를 점유하고 있음

〈표-9〉 중국인 출국자 수 대비 방한 중국인 변화 추이

연도	중국인출국자(A)		방한중국인(B)		구성비(B/A)
			(중국->한국)		
	수(천명)	성장률(%)	수(천명)	성장률(%)	
2000	10,473	-	442.8	-	4.2
2001	12,133	15.9	482.2	8.9	4.0
2002	16,602	36.8	539.5	11.9	3.2
2003	20,222	21.8	512.8	-4.9	2.5
2004	28,853	42.7	627.3	22.3	2.2
2005	31,026	7.5	710.2	13.2	2.3
2006	34,524	11.3	897.0	26.3	2.6
2007	40,954	18.6	1,068.9	19.2	2.6
2008	45,844	11.9	1,167.9	9.3	2.5
2009	47,656	4.0	1,342.3	14.9	2.8
2010	57,387	20.4	1,875.2	39.7	3.3
2011	70,250	22.4	2,220.2	18.4	3.2
2012	83,183	18.4	2,836.9	27.8	3.4
2013	98,871	18.9	4,326.9	52.5	4.4
2014	107,000	8.2	6,126.9	41.6	5.7
2015	120,000	12.1	5,984.2	-2.3	5.0

#### □ 한·중 관광 교류 규모

- 방한 중국인은 2003년 SARS 및 이라크 전쟁을 제외하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52.5% 급증하였으며, 2015년에는 MERS의 영향으로 2.3% 감소함
  - 2010년 기준 방한 중국인의 한국관광시장의 점유율은 2010년 21.3%, 2013년에는 총 방한관광객 35.5%, 2015년 45.3%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방중 한국인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에 전년대비 17.1% 감소하였고, 2010년에 방한 중국 관광시장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낮은 수준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3년을 기점으로 방한 중국인이 방중 한국인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는 407만명, 2013년으로 397만명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나 2014년부터 증가함

〈표-10〉 한·중 상호 방문 현황

구 분	총 방한 입국자수(명)	성 장 륜 (%)	중국→한국		한국→중국		총방한객 대비 중국인 점유율
			인원(명)	성 장 륜(%)	인원(명)	성 장 륜(%)	
2001년	5,147,204	-3.3	482,227	8.9	1,678,836	24.8	9.4
2002년	5,347,468	3.9	539,466	11.9	2,124,310	26.5	10.1
2003년	4,752,762	-11.1	512,768	-4.9	1,945,500	-8.4	10.8
2004년	5,818,138	22.4	627,264	22.3	2,844,893	46.2	10.8
2005년	6,022,752	3.5	710,243	13.2	3,545,341	24.6	11.8
2006년	6,155,044	2.2	896,969	26.3	3,923,986	10.7	14.6
2007년	6,448,240	4.8	1,068,925	19.2	4,776,752	21.7	16.6
2008년	6,890,841	6.9	1,167,891	9.3	3,960,392	-17.1	16.9
2009년	7,817,533	13.4	1,342,317	14.9	3,197,500	-19.3	17.2
2010년	8,797,658	12.5	1,875,157	39.7	4,076,400	27.5	21.3
2011년	9,794,796	11.3	2,220,196	18.4	4,185,400	2.7	22.7
2012년	11,140,028	13.7	2,836,892	27.8	4,069,900	-2.8	25.5
2013년	12,175,550	9.3	4,326,869	52.5	3,969,000	-2.5	35.5
2014년	14,201,516	16.6	6,126,865	41.6	4,181,800	5.4	43.1
2015년	13,213,651	-6.8	5,984,170	-2.3	4,444,400	16.2	45.3

자료: 한국관광공사, CNTV, 중국여유국

### 3. 한·일 관광교류 규모

#### □ 일본의 아웃바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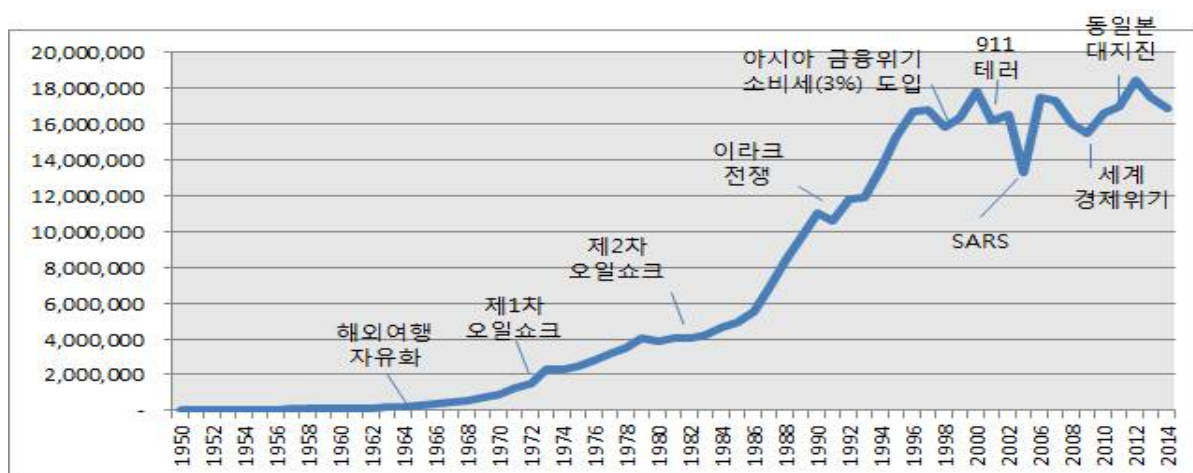
- 1964년 일본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일본인 해외여행객은 1980-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더불어 소비세(3%) 도입으로 해외여행이 감소한바 (-5.9%) 있음
-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감소하였으며, 2003년에는 SARS로 인해 해외여행객이 급감하였으며 (-19.5%), 2007년과 2009년사이의 연이은 세계금융위기 및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등의 영향으로 해외여행객이 감소함
- 2009년 이후 여행객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으나, 2013년 이후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인 해외여행객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기준 전체 일본인 출국자의 13.5%가 한국여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인 출국자 수 대비 방한 일본인 비중은 2009년 이후 20% 가까이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15.7%의 점유율을 보임

<표-11> 일본인 출국자 수 대비 방한 일본인 수 추이

연도	일본인출국자(A)		방한일본인(B)		구성비(B/A)*
	수(천명)	성장률(%)	수(천명)	성장률(%)	
2001	16,216	-9.0	2,377.3	-3.8	14.7
2002	16,523	1.9	2,320.8	-2.4	14.0
2003	13,296	-19.5	1,802.5	-22.3	13.6
2004	16,831	26.6	2,443.1	35.5	14.5
2005	17,404	3.4	2,440.1	-0.1	14.0
2006	17,535	0.8	2,338.9	-4.1	13.3
2007	17,295	-1.4	2,236.0	-4.4	12.9
2008	15,987	-7.6	2,378.1	6.4	14.9
2009	15,446	-3.4	3,053.3	28.4	19.8
2010	16,637	7.7	3,023.0	-1.0	18.2
2011	16,994	2.1	3,289.1	8.8	19.4
2012	18,491	8.8	3,518.8	7.0	19.0
2013	17,473	-5.5	2,747.7	-21.9	15.7
2014	16903	-3.2	2,280.4	-17.0	13.5
2015	-	-	1,837.7	-19.4	-

- 일본인의 아웃바운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경기 침체에 따른 여행구매력 감소, 장거리에서 단거리로의 목적지 전환, 여행기간 단축 등의 세 가지 양상을 보이며 해외여행도 일반대중에서 소수의 해외여행층(FIT)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자료: 조아라 (2015), 일본관광시장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한·일 관광교류 규모

- 일본인의 한국(일본-> 한국) 입국자의 비율은 한국 총입국자의 2000년 46.5% 2005년 40.5%, 2007년에는 34.7%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3.9%로 그 비중이 감소함
- 2013년 이후 일본인의 한국입국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부분적으로 엔저 현상에 의한 것과 정치 외교 갈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방일 한국인은 2000-2007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13.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2008년과 2009년 세계경제 불황에 의한 방일 한국인의 감소에 이어 2011년 일본 대지진에 의한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 이후 방일 한국인은 높은 수준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2015년 최대방문객인 400만명이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음

<표-12> 한·일 관광교류 규모 (2001-2007)

	총입국자수	방한 일본인 (일본 -> 한국) (A)		방일 한국인 (한국 -> 일본) (B)		총방한객 대비 일본인 점유율
		수(천명)	성장률(%)	수(천명)	성장률(%)	
2001년	5,147,204	2,377,321	-3.8	1,133,971	6.5	46.2
2002년	5,347,468	2,320,837	-2.4	1,271,835	12.2	43.4
2003년	4,752,762	1,802,542	-22.3	1,459,333	14.7	37.9
2004년	5,818,138	2,443,070	35.5	1,588,472	8.8	42.0
2005년	6,022,752	2,440,139	-0.1	1,747,171	10.0	40.5
2006년	6,155,044	2,338,921	-4.1	2,117,325	21.2	38.0
2007년	6,448,240	2,235,963	-4.4	2,600,801	22.8	34.7
2008년	6,890,841	2,378,102	6.4	2,382,548	-8.4	34.5
2009년	7,817,533	3,053,311	28.4	1,586,772	-33.4	39.1
2010년	8,797,658	3,023,009	-1.0	2,439,816	53.8	34.4
2011년	9,794,796	3,289,051	8.8	1,658,073	-32.0	33.6
2012년	11,140,028	3,518,792	7.0	2,044,249	23.3	31.6
2013년	12,175,550	2,747,750	-21.9	2,456,165	20.1	22.6
2014년	14,201,516	2,280,434	-17.0	2,755,313	12.2	16.1
2015년	13,213,651	1,837,782	-19.4	4,002,052	45.2	13.9

### III. 방한 중국인 및 일본인 여행 행태<sup>1)</sup>

#### 1. 방한 중국인 여행 실태

##### □ 방한 목적

○ 주요 방한 목적으로 ‘여가/위락/휴가’(74.4%) 목적이 가장 높음

(단위: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여가/위락/휴가	74.4	59.5	49.0	48.0	53.8
쇼핑	12.5	8.7	9.8	9.8	-
사업/전문활동	5.9	13.4	15.4	18.6	24.0
친구/친지방문	2.9	8.5	11.7	13.8	12.0
교육	2.5	8.0	12.8	6.5	-
종교/순례	1.0	1.1	0.6	1.4	0.2
뷰티/건강/치료	0.8	0.9	0.5	0.5	0.2
기타	0.0	0.0	0.1	0.4	9.8

##### □ 한국 선택 시 고려 요인

○ 방한 시 중국인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 ‘쇼핑’(78.4%)이 가장 높게 나타남 (방한 일본인은 ‘음식/미식탐방’이 72.5%로 가장 높음)

(중복응답, 2014년 상위 10위 기준, 단위: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쇼핑	78.4	62.2	73.8	70.7	65.0
자연풍경	60.5	56.2	57.0	42.1	45.7
음식/미식탐방	34.4	31.0	34.4	34.4	24.7
패션/유행 등 세련된 문화	23.9	19.0	15.8	25.0	30.7
역사/문화유적	22.9	14.5	24.8	15.0	22.6
경제적인 여행비용	9.7	6.4	5.6	6.0	14.5
유흥/놀이시설	7.7	8.4	9.1	22.1	10.5
여행 가능한 여가시간	7.5	8.8	6.3	6.8	0.0
잘 갖춰진 휴양시설	6.9	12.7	16.0	14.7	24.5
거리	6.6	11.5	10.0	10.4	14.0

1) 중국인 및 일본인 여행실태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4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 의거함

## □ 이용 숙박시설

○ 중국 관광객 대부분은 숙박시설로 ‘호텔’(76.7%)을 이용함

(중복응답, 단위: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호텔	76.7	69.6	59.7	59.5	60.6
	유스호텔/게스트하우스/여관/모텔	13.0	10.9	12.5	15.3	10.0
	콘도/펜션/레지던스인	5.4	6.1	4.9	5.3	1.0
	친척 또는 친구집	4.2	11.1	15.3	20.4	17.2
	학교/회사 기숙사/연수원	2.3	6.8	11.9	6.3	10.7
	홈스테이	1.4	-	-	-	-
	사찰	0.0	0.1	0.4	0.5	0.2
	기타	0.4	0.3	0.3	0.5	0.2

## □ 방한기간 중 주요 참여 활동

○ 방문 기간 중 주요 참여 활동으로 ‘쇼핑’(87.7%)이 가장 높음 (방한 일본인은 식도락 관광이 가장 높음)

(중복응답, 2014년 상위 10위 기준, 단위: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쇼핑	87.7	82.8	85.7	81.0	72.8
	식도락관광	60.7	47.7	60.0	51.2	30.8
	자연경관 감상	42.7	20.4	18.6	20.2	-
	고궁/역사유적지 방문	24.8	13.0	10.2	10.4	-
	유흥/오락	10.5	11.4	12.0	19.1	5.3
	테마파크	9.7	9.4	5.0	9.7	13.0
	박물관/전시관 방문	9.5	6.5	6.5	6.4	-
	휴양/휴식	4.8	7.6	12.1	9.4	11.2
	온천/스파	3.8	5.5	5.3	7.9	5.6
	공연/민속행사/축제참가/관람	3.7	3.9	3.7	4.1	4.6

## □ 중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중 총 지출 경비

○ 중국 관광객의 총 지출 경비는 평균 US\$2,094.5 (일본 관광객은 US\$ 999.1), 개별관광객은 US\$ 2,267.8, Air-tel 여행객의 총 지출 경비는 평균 US\$2,863.6로 나타남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전체	2,094.5	2,271.9	2,153.7	1,939.6	1645.9
	개별관광객	2,267.8	2,523.5	2,317.5	1,928.1	1604.9
	단체관광객	1,791.4	1,987.5	1,879.8	1,991.1	1708.8
	Airtel	2,863.6	2,059.8	2,125.4	1,407.0	1606.1

## □ 쇼핑실태

- 중국 관광객의 주요 쇼핑 품목으로 ‘향수/화장품’(84.4%)이 가장 높음 (일본 관광객은 식료품 구매가 높음)

(중복응답, 2014년 상위 10위 기준, 단위: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향수/화장품	84.4	73.1	68.5	68.9	55.6
의류	47.0	40.8	51.3	43.7	50.9
식료품	34.3	32.7	29.8	32.4	19.4
피혁제품	16.0	14.8	10.9	7.0	5.3
인삼/한약재	12.9	18.9	19.1	26.8	31.2
신발류	12.2	13.5	21.4	14.6	19.9
김치	6.5	9.3	8.0	15.8	12.6
보석/악세서리	5.4	11.0	9.6	8.0	9.2
시계	5.2	7.3	5.9	6.2	3.7
전자/전기제품	4.9	6.5	8.6	8.1	12.8

## □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 항목별 만족도 중 ‘치안(안전성)’(96.1%)에 대한 만족 비율이 가장 높음. (일본 관광객은 음식에 만족도가 높은 비율)

(단위: 만족 비율합산,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출입국절차	92.3	92.1	90.1	82.1	82.4
대중교통	90.5	90.6	87.7	79.3	73.9
숙박	91.1	85.9	88.4	73.9	73.7
음식	84.4	79.0	81.5	71.7	69.0
쇼핑	94.1	91.9	90.8	87.1	79.5
관광지매력도	86.9	81.3	82.0	65.6	63.9
관광안내서비스	85.3	82.2	84.7	72.2	66.7
언어소통	67.6	62.8	68.5	47.7	-
여행경비	83.6	81.0	80.2	62.7	-
치안(안전성)	96.1	96.5	94.4	85.9	-

## 2. 방한 일본 관광객 여행 실태

### □ 방한 목적

○ 주요 방한 목적으로 ‘여가/위락/휴가’(52.1%) 목적이 가장 높음

(단위: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여가/위락/휴가	<b>52.1</b>	45.7	45.2	50.8	66.9
사업/전문활동	<b>20.2</b>	16.7	17.6	23.6	22.1
쇼핑	<b>13.3</b>	22.2	20.7	12.8	-
친구/친지방문	<b>8.9</b>	9.7	9.7	9.4	9.4
교육	<b>3.0</b>	2.7	3.1	2.0	-
뷰티/건강/치료	<b>1.4</b>	1.6	2.0	0.2	0.1
종교/순례	<b>1.1</b>	1.3	1.6	0.9	0.6
기타	<b>0.0</b>	0.2	0.0	0.1	1.0

### □ 한국 선택시 고려 요인

○ 방한 일본인의 한국 선택시 고려 요인으로 음식/미식 탐방 (72.5%) 가장 높은 순위를 보임

(중복응답, 2014년 상위 10위 기준, 단위: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음식/미식 탐방	<b>72.5</b>	67.7	61.4	57.1	56.1
쇼핑	<b>64.9</b>	64.8	64.7	69.6	62.3
역사/문화유적	<b>30.7</b>	16.9	16.8	16.8	15.0
자연풍경	<b>24.6</b>	13.6	8.7	6.1	6.3
K-POP/한류스타 팬미팅 경험	<b>14.5</b>	15.0	11.2	10.9	12.8
여행 가능한 여가시간	<b>12.2</b>	10.2	7.0	4.1	0.0
유흥/놀이시설	<b>11.8</b>	9.7	6.2	19.9	14.2
거리	<b>9.6</b>	17.1	29.1	32.4	47.6
이미용 서비스	<b>8.3</b>	8.1	9.8	6.1	0.0
경제적인 여행비용	<b>7.8</b>	16.2	18.0	23.0	34.5

## □ 이용 숙박시설

○ 일본 관광객 대부분은 숙박시설로 ‘호텔’(82.3%)을 이용함

(중복응답, 단위: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호텔	82.3	84.0	84.4	86.9	87.3
유스호텔/게스트하우스/여관/모텔	9.1	7.7	7.4	7.6	5.2
친척 또는 친구집	4.2	4.8	6.2	5.8	3.8
학교/회사기숙사/연수원	3.1	3.0	4.3	3.4	1.4
콘도/펜션/레지던스인	2.6	3.5	3.0	1.9	2.0
홈스테이	0.5	-	-	-	-
사찰	0.1	0.0	0.2	0.4	0.0
기타	0.8	0.9	1.0	0.8	0.1

## □ 방한기간 중 활동

○ 방문 기간 중 주요 참여 활동으로 ‘식도락관광’(61.2%)이 가장 높음

(중복응답, 2014년 상위 10위 기준, 단위: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식도락관광	61.2	56.6	61.7	64.9	66.8
쇼핑	59.6	73.4	77.2	76.5	69.9
고궁/역사유적지 방문	24.8	11.6	11.6	9.9	-
자연경관 감상	17.0	11.6	12.3	8.3	-
업무 수행	14.7	11.4	12.9	19.9	16.5
휴양/휴식	13.9	9.7	3.7	3.9	4.4
미팅/회의/학술대회 등 참가	12.5	7.1	5.4	9.7	6.1
뷰티관광	10.7	15.4	17.9	21.1	16.8
온천/스파	9.8	14.1	11.2	12.8	4.2
공연/민속행사/축제참가/관람	9.1	10.6	7.9	4.0	5.6

## □ 일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중 총 지출 경비

○ 일본 관광객의 총 지출 경비는 평균 US\$999.1, 개별여행객의 총 지출 경비는 평균 US\$995.4, 단체여행객의 총 지출 경비는 평균 US\$1,033.2, Air-tel 여행객의 총 지출 경비는 평균 US\$1,003.3로 나타남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전체	999.1	990.9	1,173.1	1,081.0	1,075.9
개별관광	998.4	931.2	1,023.6	900.9	912.7
단체관광	1,033.2	1,139.8	1,328.2	1,392.4	1,312.1
에어텔	1,003.3	1,087.2	1,400.5	1,226.5	1,178.4



## □ 주요 쇼핑 품목

○ 일본 관광객의 주요 쇼핑 품목으로 ‘식료품’(66.5%)이 가장 높음

(중복응답, 2014년 상위 10위 기준, 단위: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식료품	66.5	50.4	54.2	58.3	65.5
향수/화장품	43.1	43.0	47.5	47.0	41.6
의류	34.7	32.1	29.9	26.2	24.5
신발류	11.4	13.0	15.4	11.2	10.4
김치	10.3	18.1	15.7	13.7	18.0
피혁제품	9.3	11.2	15.6	11.4	13.2
주류	6.7	5.9	5.8	9.0	8.1
음반/DVD	6.4	5.1	6.3	9.6	6.1
보석/악세서리	4.8	5.7	8.2	9.7	13.8
담배	4.7	9.8	4.9	7.5	5.0

## □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중 ‘음식’(87.5%) 만족 비율이 가장 높음

(단위: 만족 비율합산, %)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출입국절차	65.4	62.9	64.3	53.4	76.3
대중교통	68.0	60.8	62.8	48.6	56.9
숙박	77.7	72.1	71.6	52.9	73.9
음식	87.5	83.4	85.1	81.5	86.0
쇼핑	72.9	72.2	76.3	73.9	77.3
관광지매력도	62.5	59.3	64.8	54.3	66.0
관광안내서비스	48.9	50.2	55.5	40.8	58.3
언어소통	55.5	50.5	59.5	43.2	-
여행경비	45.8	54.6	67.3	57.7	-
치안(안전성)	62.8	64.7	72.8	51.1	-

#### IV. 한·중·일 관광 교류협력 동향

##### □ 교류협력의 개요

- 한·중·일 3국은 2006년 제1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6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역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3국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광교류범위의 확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 매년 개최되던 한·중·일 3국의 관광장관회의는 2012년 중국의 불참통보로 무기 연기되어 4년 후인 2015년 제7차 회의가 개최됨
- 우리나라는 1995년에 발족된 ‘한·중관광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국과 관광교류협력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1986년 이래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2015년 기준 제30차까지 한일관광진흥협의회가 개최됨
-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국가의 지자체교류대회, 자매도시 교류사업 등을 통해 국가간에 협력하고 있으며, 지방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지역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
- 한국과 중국은 2008년 ‘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구성에 합의
- 민간차원에서는 ‘한·중·일 관광포럼’을 통해 한·중·일 3국 정부관계자 및 관광정책연구기관 전문가, 민간 관광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민간 관광 교류협력 기반 구축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음
- 한·중·일 역내 시장에서 관광교류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관광협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역외시장을 겨냥한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대응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 한·중·일 정상은 3국간 관광확대를 위한 관광당국 및 관광사업간 교류와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함
- 2006년 제1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중단되었다가 2015년 제7회 회의를 개최함
-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더불어 역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3국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광교류범위의 확장 등이 주요 의제임

**<표-13>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제1차~제7차)**

개최시기	개최지	주요내용
2006.7 (제1회)	홋카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분야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li> <li>◦ 관광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교류 확대</li> <li>- 지방자치단체 협력 확대</li> <li>- 스포츠 교류 확대</li> </ul> </li> <li>◦ 역외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li> <li>- 국제행사의 3국 공동 유치</li> <li>- 3국을 경유하는 공동 관광상품 개발</li> </ul>
2007.6 (제2회)	청도, 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li> <li>◦ 3국 간 정부 및 민간 업계 간의 협력 강화</li> </ul>
2008.6 (제3회)	부산, 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교류 확대와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장애요인 제거</li> <li>◦ 여행객 이동의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정보 교환</li> <li>◦ 3국 공동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방안</li> <li>◦ 3국 지방 간 문화관광교류 촉진</li> <li>- 청소년 교류</li> <li>- 축제 및 스포츠 교류</li> <li>- 3국 지역 간 자매도시 결성</li> </ul>
2009.10 (제4회)	나고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부터 2012년까지를 한중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li> <li>◦ 2010 상하이 EXPO, 2012 여수엑스포 등을 상호 홍보 활용</li> <li>◦ 국제관광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동아시아 대(大) 교류시대의 도래 및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의견 교환</li> </ul>
2010.8 (제5회)	항저우, 후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간 공동 관광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li> <li>◦ ‘2015년까지 3국간 역내 관광교류 2,600만 명 달성’ 목표 제시</li> <li>◦ 한·중·일 저탄소녹색관광 이니셔티브 체결</li> </ul>
2011.5 (제6회)	평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 위기 상황에 대한 3국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li> <li>◦ 한·중·일 관광 교류 규모 확대를 위한 Tourism Vision 2020 수립</li> <li>◦ 한·중·일 공정관광 이니셔티브 체결 추진</li> <li>◦ 한·중·일 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사업 발굴</li> </ul>
2015.4 (제7회)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관광교류 신시대의 개막</li> <li>◦ 동아시아 방문 캠페인(Visit East Asia Campaign) 추진</li> <li>◦ 한·중·일 3국의 제휴 강화를 통한 관광교류의 질적 향상</li> </ul>

## □ ‘제7회 관광장관회의(2015년)’ 주요 내용

### ○ 한·중·일 관광교류 신시대의 개막

- 한·중·일 3국은 2020년까지 인적교류 3,00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항공 노선과 크루즈 취항 확대, 교통 및 통신 환경 개선, 신용카드 등 결제 환경 정비와 같은 여행자의 편리성 제고에도 공동으로 노력
- ‘쌍방향 교류’, ‘지방관광 교류’, ‘문화·스포츠·청소년의 교류’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민관 협력을 강화: 자매도시, 우호도시 간 교류 투어 실시, 축제, 세계유산 등 문화·역사 교류투어 실시와 공동 프로모션, 국제적 스포츠대회 계기 관광 교류와 공동 프로모션, 한·중·일 교육 여행 심포지엄 개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여행 서비스 고도화, 관광 관련 교육·연구 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 관광 인재 양성 등을 공동 추진

### ○ 동아시아 방문 캠페인(Visit East Asia Campaign)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을 하나의 여행 목적지로 새롭게 구축하는 “동아시아 방문 캠페인”(Visit East Asia Campaign)을 공동으로 추진. 공동 포스터와 팸플릿을 제작하여 독일(ITB), 영국(WTM), 스페인(FITUR) 등의 세계적인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공동 홍보·마케팅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3국 여행사 간의 공동 경로(루트) 개발과 관광 상품화도 추진
- 동아시아 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의 연결과 주유를 향상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공항을 연계한 항공노선 확대와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도 공동으로 노력

### ○ 한·중·일 관광교류의 질적 향상 추진

- 한·중·일 3국은 역내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안전의 확보, 관광교류 위기 시 상호 협력, 각국의 생활 습관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와 쇼핑 문제 등

## □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민·관의 영역에서 문화 및 관광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관광진흥을 위하여 한일 관광진흥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
- 1985년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서 양국은 관광부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986년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30차 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음

**<표-14> 한·일 관광진흥협회의 주요내용(제20차~제30차)**

개최시기	개최지	주요내용
2005.11 (제20차)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재활성화</li> <li>◦ 지방 관광매력 홍보 및 지방 관광 촉진</li> <li>◦ 젊은 층의 여행 활성화 및 문화·스포츠를 통한 교류 촉진</li> <li>◦ 관광교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표창제도 제정</li> <li>◦ 동아시아 관광교류 확대 위해 한·중·일 관광장관회담추진 협력</li> </ul>
2006.12 (제21차)	니가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관광교류 확대 공동사업 실시현황</li> <li>◦ 한·중·일 관광 대신 회합</li> <li>◦ 한·일 여행업계간 과제와 협력사항</li> </ul>
2007.12 (제22차)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년 한·일 관광교류 확대사업 및 한·일 관광장관회담 주요 성과</li> <li>◦ 2008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 양국 공동사업</li> <li>◦ 지방간 교류활성화</li> </ul>
2008.12 (제23차)	후쿠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관광프로모션 전개</li> <li>◦ 청소년 교류 활성화</li> <li>◦ 한일 관광업계, 경제계 간 협력 강화</li> <li>◦ 문화·스포츠·이벤트 교류촉진 활성화</li> </ul>
2009.12 (제24차)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양국방문의 해 계기 한·일 관광교류 확대방안</li> <li>◦ 한·일 청소년 교류 강화</li> <li>◦ 신종 인플루엔자 등 관광교류 위기대응 방안</li> <li>◦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문화관광자원 개발</li> </ul>
2010.12 (제25차)	다카마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li> <li>◦ 새로운 관광인프라와 서비스를 활용한 양국으로의 국제관광객 유치</li> <li>◦ 문화·예술·스포츠를 중심으로 관광교류 진흥을 위한 협력</li> </ul>
2011.12 (제26차)	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상황 발생시 정확한 정보전달 및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한 상호협력</li> <li>◦ 양국 간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간 교류 증대 등 양국 관광교류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논의</li> <li>◦ 한일 양국 2013년 상호 교류인원 700만 명 목표 달성에 인식을 공유하는 등 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관광교류 증진에 기여하도록 운영기로 합의</li> </ul>
2012.10 (제27차)	-	-
2013.6 (제28차)	하코다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간 지방관광교류 확대를 통한 관광교류 증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양국의 자매도시 간 교류, 크루즈 관광, 지방공항 활성화 등을 통한 홍보 및 참가를 유도</li> <li>◦ 정치적 갈등, 자연재해, 질병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 전달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상호 협력</li> </ul>
2014. (제29차)	-	-
2015.6 (제30차)	평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관광교류의 발전을 위해서 양국 간 지방 관광교류 확대를 적극 추진</li> <li>◦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역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li> <li>◦ 자연재해, 질병 등 관광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고 관광교류 회복을 위한 조치에 최대한 협조</li> </ul>

## □ 한·중 관광진흥협의회 및 한·중 관광장관회의

- 한국정부의 제안에 따라 1995년에 북경에서 제1차 한·중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 이래, 2002년까지 총 5회의 회의가 진행된 이후로 차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후진타오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중 관광분야 교류촉진에 대한 추진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9년 11월 제1회 한·중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한·중 관광 교류의 새로운 틀을 형성함
- ‘2010 중국방문의 해’와 ‘2012 한국방문의 해’ 및 ‘2010 상하이 엑스포’와 ‘2012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한·중간 상호 방문한 사례가 있음
-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한 관광교류협력 발전을 위하여 한·중 관광장관회의담의 정례화 추진
- 한·중 관광장관회의담 논의사항 등 양국 관광분야의 공동발전 방안 마련,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의 ‘한·중 관광진흥협의회’의 재개

## □ 한·중·일 관광 교류협력의 주요 논의사항

- 관광교류 확대의 제약요인 개선: 한·중·일 3국은 상호간 비자 및 입국수속 간소화, 관광객 방문 편의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 중국인 개인관광객 비자서류 대폭 간소화(2009),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2008), 중국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시행(2007))
-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관광안내 표시의 국제표준화,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제공 서비스모델 개발 논의
- 청소년교류, 문화·스포츠교류, 자매 도시교류: 수학여행을 시작으로 한 청소년교류, 문화·스포츠교류, 자매·우호도시체결, 그 외의 방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활용한 관광교류 촉진에 상호 협력
- 민간단체 간 교류: 관광관계 민간단체 조직으로 ‘3국간 교류 교육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장관회의 주제와 관련한 의제에 대한 의견교환 실시 후 실행에 옮김. 한·중 연해지역도시 관광포럼, 한·중·일 민간관광포럼, 여행업간의 업무제휴 체결 등
- 공동 상품개발 프로모션: 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한·중·일 연계 크루즈상품의 확충과 각국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등의 기획에 협력하고, 3국 역외 지역의 관광박람회에서의 공동프로모션 등 추진
- 관광교류 영역 확대: 산업관광 수요확대에 대한 공동대처 지역간 관광협력교류 메커니즘 구축을 장려. 3국은 의료, 스포츠, 문화 등과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 및 이용 촉진에 대해 논의
- 관광분야에 대한 상호간 직접투자: 관광개발에 관한 정보교환, 투자설명회 개최, 참석 등 관광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직접투자 확대에 관한 협력을 논의함

-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자연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부문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교류에 협력 논의
- 다국간 관광국제기구 조직 활용: 세계관광기구(UNWTO), ASEAN+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등 다국간 협력과 지역협력 국제관광 기구 활용. 한·중·일 정상회의, T20 관광장관회의,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위원회, APEC 관광장관회의 등 다자간 기구 및 교류활동을 통하여 관광협력을 강화를 논의함
- MICE 산업 활성화: 3국간 관광교류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이벤트 개최와 동시에 대규모 스포츠이벤트, 박람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모객과 한·중·일 각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관광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개최국은 상호 방문을 촉진함
- 관광인력육성: 관광관련 사업자간 제휴, 교류 및 해외연수 실시 등을 통하여 국제관광분야 인력 육성을 도모. 한·중·일 3국은 업계종사자의 교류와 해외연수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관광관련 전문교육 및 인적교류 협력전개
- 관광통계 정보 교환: 관광통계를 개선하고, UNWTO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의 관광 동향에 맞추어 3국간 사무적 협의 추진
- 환경보존: 관광과 환경보호라는 당면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기후변화, 자연재해 예방 등에 관한 관련정보 상호교환 및 경험 공유 등 협력체계를 강화
-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 국은 자연재해, 전염병 등 국제관광교류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에서 정보공유를 통한 시장회복 도모 등 공동 대응협력을 강화 논의
- 관광의 정보화 (공통IC카드): 관광교류활성화를 위한 교통, 숙박, 음식 등 관광산업부문에서 국제상호 이용가능 한·중·일 3국간 제휴 관광객용 IC카드 결제시스템의 단계적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논의
- 관광객 안전관리: 한·중·일 3국은 안전관리 및 응급보호처치 시스템을 정립하고 응급상황 대응책 및 관련법규를 확립함으로써 안전관광을 위한 협력을 강화를 논의





## 2. 지자체 차원의 관광교류 정책 및 방안



# 지자체 차원의 관광교류 정책 및 방안

발표자  
민웅기 / 목원대학교

- 국내 관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관광목적지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경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관광교류 과정에서 운영되는 관광지리자원의 범주 및 그들 간 관계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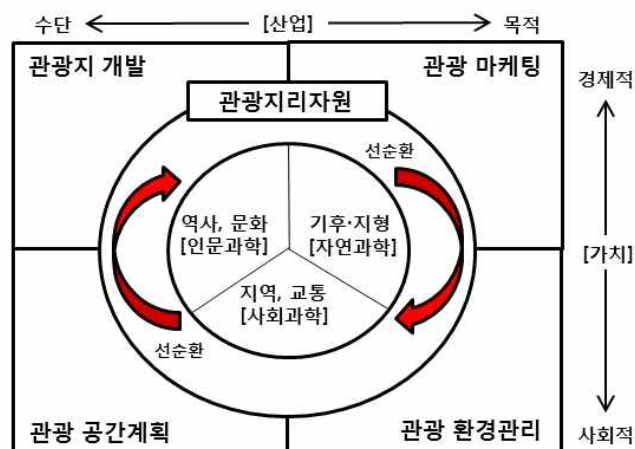


그림 1. 관광교류과정에서 운영되는 관광지리자원의 범주

● 지역(도시)마케팅의 필요성: 충청남도가 지닌 관광분야의 지역 경쟁력은 무엇인가?

- 누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 무엇을 하는가? (관광지개발, 도시재생, 도시공간 판매 등)
- 왜 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관광목적지의 자원 구분: 기본적(primary) 관광자원  
2차적(secondary) 관광자원  
3차적(tertiary) 관광자원

→ ‘충청남도의 관광목적지에 내재된 관광지리자원의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요구됨

● 워터파크



- 2014년 세계 20대 워터파크 연간 입장객 수는 2760만 명으로 2013년 2680만 명 대비 2.8% 성장
- 전 세계 20대 워터파크 중 비발디파크 오션월드(5위), 에버랜드 캐러비언 베이(7위), 리솜 스파캐슬(11위), 웅진플레이도시 워터도시(20위) 등. 충청남도의 리솜 스파캐슬이 주요 순위 차지



## ● 박물관 & 전시관



- 한국 박물관 중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방문객수는 각각 16위, 20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평균 성장률 1.6%를 훨씬 상회하는 15.9%, 20.9%의 성장률 기록
- 한국-중국-일본 및 동아시아에 걸쳐 함께 기록되어 각국의 사회구성원들이 공유·공감할 수 있는 역사자원의 관광자원화 과정 필요
- 관광객 스스로가 그것의 고유성(authenticity)을 느낄 수 있는 '예술관람형-교육형-참여형' 관광상품의 활성화 기대: 대안관광의 전형

## ● 아웃도어 여가-레크리에이션



- 힐링(healing) 컨셉과 관련한 활동형 스포츠 관광존을 활성화하기 위한 캠핑장, 도보여행로 등의 공간구획 및 운영·관리 필요(예: 내포문화숲길 등)  
: 지자체 간 협력 필요
- 지역 고용창출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수익구조 개발모형 필요
- 친환경 자원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대안적 관광자원 설계를 위한 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

## ◆ 교통 네트워크



- 장소이동에 근간을 둔 관광자원 간 교통 네트워킹의 주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특히 대중교통과의 연계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철도 및 공항 주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소비공간 마련이 필요함

## ◆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추구하는 공통 가치의 구현을 통한 관광콘텐츠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구현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은 시·공간의 공유를 가능하게 함  
: 글로칼리제이션(glocalization)
- 지역 내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구조에 의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의 동시적 실현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소외지역 및 계층 지원, 환경가치의 인식, 지역사회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 사회기반시설 및 간접자본 확충  
: 지역중심의 대안적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공정관광과의 연계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및 충청남도 관광교류정책의 시사점

1. 관광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콘텐츠 → ICT 하드웨어를 이용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system) 구축 및 신뢰(trust)에 기반한 자체 모니터링 및 시민단체의 활동 → 개인관광객 타겟팅(targeting)
2. 대중 관광교통체계 구축 → 충남 내 주요 관광목적지 간 대중교통 미비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공항, 철도, 버스 등 환승시스템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됨 → 지역 내 카 셰어링, 클버스 등의 활용을 통한 관광지 이동 편의 제공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충청남도 관광교류정책의 시사점

3. 지역 내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효과 → 관광 기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의 적극적 적용 → 지역사회 기반시설 이용 지원(하우징 셰어링 등)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내생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 할 수 있음
4. 제품서비스 시스템의 재분배 시장으로의 적용 → 관광객 및 지역사회 마켓 플레이스, 교환소 등의 운영 → 친환경 관광활동 독려를 통한 자본 순환의 효율성과 형평적 분배구조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지역 연계 체계구성



- 충청남도 지역 내 공유 관광자원 간 네트워크 상에서 허브(Hub)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 태안 지역 내 관광인프라 간 네트워크 방안을 마련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 하나의 분명한 컨셉이 구현된 도심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이를 통한 환경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대중 교통 및 ICT기반 관광정보애플리케이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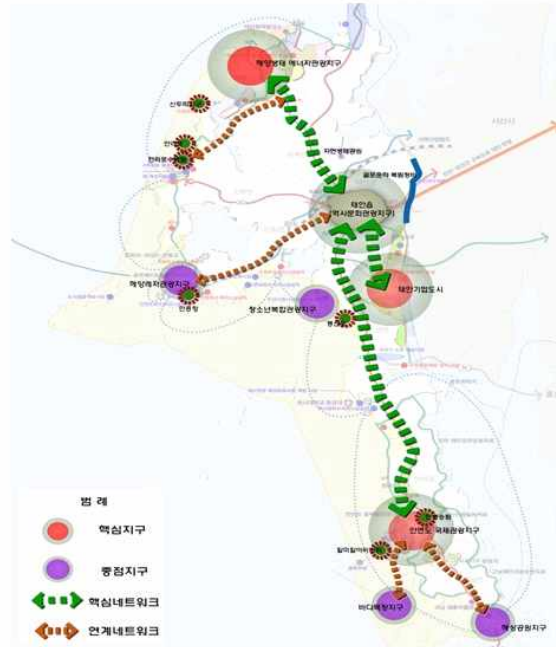


그림 2. 구도심인 태안읍과 주변관광자원 연계방안의 사례(안)

- 동북아시아 지역 내 공유경제체계의 전략적 제휴는 어떤 정책적 방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하드웨어적 측면]



- 지역 내 보유 시설, 장비, 토지 등의 공유(국가-국가 간, 국가-기업 간, 기업-기업 간, 개인-기업 간, 개인-개인 간)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 지역 내 지적 재산을 어떻게 보호, 공유할 것인가?
- 지역 내 현재의 유휴자원과 다른 지역의 유휴자원을 어떻게 연계하여 그 가치를 직접 교환할 것인가?



● 동북아시아 지역 내 공유경제체계의 전략적 제휴는 어떤 정책적 방안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가? [소프트웨어적 측면]



-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이 그 가치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 고대국가, 학자의 유학, 해양 무역, 가상의 문화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 등]
- 이문화(異文化) 간 ‘보편성’ 과 ‘고유성’ 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 보편성 - 기후변화, 불교문화, 쇼팽를 등 / 고유성 - 보물선, 재래시장, 먹거리 등]

13/12

● 충청남도-동북아시아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동북아시아 도시들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충청남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도시브랜딩 전략이 요구됨  
: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비전추진조직과 브랜드 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
- 충청남도 지역 전체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총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위상 강화 및 공유경제시스템으로의 조직 전환
- 충청남도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관광 기반 공유경제시스템 구축 모델 마련

● 충청남도-동북아시아 문화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지역 경제 내부 활성화 및 동북아지역 간 교환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조직 구축 및 육성기금조성
- 금융협동조합 등을 통한 안정적 자금운영조직 구축 및 상근 조직구성원의 확대를 통한 관광기반 지역 비즈니스 지원
- 지역 내 관광인프라 구축의 선행과정을 통해 외부 자본의 적극적 투자 유치 도모
- 정보통신기술, 복지, 관광, 도시공학 등과 관련한 융합기술교육 지원 조직의 상설화 및 축제 개최(예: 서울DMC컬쳐오픈(Seoul DMC Culture Open) 등의 미디어아트축제,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Ars Electronica Center) 등의 융합기술전시연구센터 건립, 관광관련 애플리케이션 대회 등)

감사합니다